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현아* · 방기연**

초 록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종사자 10명을 면접하고,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 경험, 그룹 홈 운영의 어려움과 대처 전략, 종사자의 보람과 비전,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제안을 조사하였다. 부모와의 동반관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은 그룹 홈 종사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생활 규칙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종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룹 홈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 그룹 홈이 아동복지법의 인가를 받기 어려운 점과, 재정적 어려움, 업무과다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청소년과 함께 지내는 기쁨과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적응, 그리고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통해 소진을 극복하였다. 그룹 홈 종사자들은 18세 이상의 탈북 청소년과 연고 청소년들도 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남한 적응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및 사회적 지지망 형성의 필요성과 그룹 홈 종사자가 탈북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였다. 논의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였고,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 홈, 그룹 홈 종사자, 합의적 질적 연구

* 서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고려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북한이탈주민 분포상의 새로운 현상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증가라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3,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9세~24세 청소년은 전체 입국자의 약 15.7%에 해당한다. 2011년 6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110여명이다(통일부 내부자료).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집이 제공될 때까지 정부가 연결해주는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 종교 단체 등이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2011년 12월 현재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시설은 13곳이다(한명자, 2012).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서 탈북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성인에 비해 남한사회 적응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우(2007)가 입국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중도포기 또는 입학 자체를 포기한 학령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 남한사람의 편견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응,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열악한 가족관계, 학업문제, 취업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정규학교 내의 학교적응(강희석, 2007; 김미숙, 2004; 김지현, 2012)이나 문화적응(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대학생활 적응(조영아, 전우택, 2004)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주민과 접촉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과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상당수의 탈북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나 미취학의 상태에 있고, 학교문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실생활을 함께 하는 거주 경험이야말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신현옥 외(2011)와 한명자(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희박한 실정이다. 두 개의 연구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탈북 청소년자체가 소수자인데다가, 탈북 청소년 집단 속의 소수자인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무연고 청소년을 포함하여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정착지원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유도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2003). 무연고 청소년 지원책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그룹 홈이다. 그룹 홈은 무연고 청소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한 적응을 촉진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노영환, 2010), 그룹 홈은 탈북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룹 홈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정부 및 민간단체의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산되기에 앞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 종사자들이 탈북 청소년과 접촉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심층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의식변화와 사전 준비가 없다면 그들의 부적응이 우리사회의 문제를 더욱 더 가중 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룹 홈 종사자들은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 그룹 홈 종사자와의 거주 경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한 주민과 탈북 청소년과의 접촉과정을 기술하고, 기존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내지 못한 측면들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특성

탈북 청소년은 이산민(diasporas)으로서 삶의 여정 안에서 이주하여 정주하고 타지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유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김경준 외, 2008). 무연고 탈북 청소년은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해체나 분리로 인해 남북분단 상황에서 가족과 떨어져 정착하고 있는 경우로 더욱더 이산민의 성격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제3국에서 꽃제비 생활 등을 하며 지내다가 불법

류자로서 신분이 불안하여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한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교육적 혜택은 받지 못했으며, 남한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장기간 무 취학 상태이거나, 일반학교 생활에서도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다(진상우, 2010).

탈북 청소년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성장기를 겪지 못하고, 남한에 입국하여 유예된 정신적 성장을 단시간 내에 겪으므로 정서적으로 더 민감해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또한,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남한 일반인들과 교감되지 않는 감정과 상황인식으로 단절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양영은, 2009).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교육경험에서 언어의 이질화, 나이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소외감과 열등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친구 사귀기가 힘들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박하나, 2007).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강희석, 2007; 김미숙, 2004; 최경자, 2008)는 주로 이들의 교육적 부적응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 부적응은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정규학교 내 청소년들도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일반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습 수준이나 학습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나이보다 1-2년 낮추어 편입학한다. 그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국어, 국사,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박일권, 2005). 공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비교적 개별적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주변화' 적응유형을 많이 보였는데, 이는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의 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금명자 외, 2004). 이때 교사와 가족이 탈북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탈북 청소년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도와줄 지원은 부족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박정순, 2008).

신현옥 외(2011)에 의하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은 부모 없는 삶, 그림고 든든한 대상이면서도 상처를 주는 두 얼굴의 가족, 가중되는 경제부담, 긴장된 일상의 연속이라는 중첩된 어려움이 있으며, 하나원 이후 기숙형 학교, 그룹 홈, 개인 후원자 혹은 아는 사람의 집에서 삶의 인식처를 찾으려고 한다. 이 때 낙인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과 무너지지 않을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능성을 모색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2.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정부를 보조하여 주로 종교단체, 통일 관련 단체, 인권 단체, 대학단체, 지역봉사 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 학교 1곳, 대안학교 7곳, 그룹 홈 13곳(생활공동체)이 있다(한명자, 2012). 특히,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집이 제공될 때까지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 이외에도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쉼터,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의 보호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부모가 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일시적 대리보호로는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 인척보호(kinship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group care)가 있다(Liderman, 1995). 시설보호의 한 형태인 그룹 홈은 연령이나 문제소지, 치료단계 때문에 부모가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계획된 집단생활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경험의 기회,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한다(Whittaker, 1985).

아동·청소년의 발달시기와 단계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 발달이론은 발달과정 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안정적이며 지지적인 환경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룹 홈과 같은 접근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신정숙, 2005).

우리나라에서 그룹 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2010.12.말 현재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며 총 17,119명의 요보호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정형태의 아동생활시설인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은 416개소에서 2,12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룹 홈에 종사하는 인력은 800여명이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를 잃는 과정을 거치지만, 남한입국 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룹 홈을 중심으로 한 지지체계가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흔히 '결핍'의 근원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가족'과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한명자, 2012).

기숙사를 활용한 탈북 대학생 대상 그룹 홈 연구(노영환, 2010)에 의하면, 그룹 홈 상태가 남한 대학생화 탈북 대학생 간의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또래협력학습의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숙사형 그룹홈은 탈북 대학생들이 겪는 상이한 체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남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생활의 규칙과 방법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노하우까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그룹 홈을 통해 결핍된 가족 체험을 얻고 있지만, 그룹 홈 종사자들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교육비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아동의 양육, 생활지도는 물론 행정관리 업무, 학부모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많은 업무에 소진되어 있다(정익중, 조순실, 2008).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생활공동체 프로그램들은 규모의 영세성, 전문 인력의 부족, 명확한 현실적 전망제시의 어려움, 통제수단의 부재 등이 있다(정병호 외, 2003).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종사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한입국 이후 친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대안학교나 그룹 홈과 같은 위탁가정 시설이라는 대리보호체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중 최근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탈북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종교 및 민간단체의 그룹 홈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룹 홈 제도의 보호체계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바람직한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인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그 현실적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은 “그룹 홈 종사자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종사자는 그룹 홈에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어떤 관계 경험을 하는가?
- 2) 그룹 홈 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종사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3) 종사자가 그룹 홈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
- 4) 종사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운영에 대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전형적 사례인 지난 1년간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그룹 홈에서 근무한 종사자 10명을 이론적 표본 추출방법으로 (theoretical sampling approach) 선정하였다. 제 1 저자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에 있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 홈 13 곳의 자료를 받아, 모든 그룹 홈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활동가를 연구 참여자로 삼았다. 전체 참여자 중 근무 경력이 2개월 된 참여자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은 6명, 남성은 4명이었으며, 연령은 25세 이상 46세 이하였다 거주지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이었는데 서울 7명, 경기 3명이었다. 이들의 그룹 홈 운영 경력은 1년에서 11년까지였다 대부분의 전공은 사회복지학, 북한학 등이었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성별	나이	그룹 홈 경력	학력(전공)	그룹 홈 특성	인원	지역
1	남	32	4년	학사(경영학)	남자 청소년	8	서울
2	여	46	1년	석사(북한학)	남녀혼합(청소년)	18	서울
3	여	45	2년	석사(북한학)	여자 청소년	5	서울
4	남	36	7년	석사과정(사회복지)	남자 청소년	10	서울
5	남	37	2년 6개월	대학중퇴	남자 청소년	5	서울
6	여	43	5년	학사(사회복지)	여자 아동	6	경기
7	여	25	1년8개월	학사(사회복지)	여자 아동	6	경기
8	여	51	1년	종교인	여자 청소년	4	서울
9	여	48	1년	종교인	여자 청소년	4	서울
10	남	42	11년	석사(인류학)	남녀혼합(아동 및 청소년)	17	경기

2.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연구자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면담 시작 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면접 녹음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은 연구자가 참여자가 근무하는 그룹 홈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50분에서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을 위하여 그룹 홈에서 탈북 청소년과 지내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보람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① 종사자들과 청소년들과의 관계, ②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전략, ③ 종사자의 보람과 비전, ④ 그룹 홈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 질문의 대답에 대한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질문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그룹 홈 종사자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선생님이 사건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신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은 ‘선생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털어놓았나요?’ 등을 질문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였다. 면접 중 중요 내용이나 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면접 분위기, 면접 전·후 등에서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록되었다. 면접 녹음테이프는 다음 면접이 시작되기 전까지 상담심리전공 대학원의 석사 과정 학생 한 명이 일차 전사하였고 연구자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녹음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되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참여자를 표기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종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종사자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범주화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인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Hill, 2011)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연구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평정자가 참여하였다. 연구자 2명은 상담심리학과 교수이며, 2명의 평정자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다. 평정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총 20시간 동안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학습하였고, 예비 면접 자료로 예비 평정을 실시하였다. 예

비 평정 작업에서 평정자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평정작업 전에 각 평정자가 편향(bias)없이 개방적으로 분석에 참여하기 위해 각자의 편향과 기대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는 1명의 교육학 박사 감수자(auditor)가 참여하였다. 감수자는 평정 팀이 개발한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 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3회에 걸쳐 평정 팀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된 결과를 검토하였다.

영역 코딩과정에서 평정자들이 면접 자료를 독립적으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평정자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네 개의 영역을 개발하였다. 중심개념 코딩과정에서 각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읽고 중심개념을 개발한 다음, 4명의 평정자가 모여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 분석 팀은 피드백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네 개의 영역을 도출하고, 각 사례별로는 27-42개의 중심개념을 도출하였다. 모든 사례의 영역과 중심개념이 확정되면, 교차 분석에서 각 영역 별로 사례 간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든 사례에 나타난 범주는 일반적(General)으로, 50% 이상 나타나는 것을 전형적(Typical)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문(Variant)으로 명명하였다. 감수자는 교차분석 자료의 각 영역의 요약반응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검토하고, 분석 팀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분석 팀은 감수자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교차 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IV 연구결과

표 2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 경험	
입소 초기 관계 맺기의 어려움	
초기에 아이들의 걸모습은 거칠고, 종사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반적
아이들이 종사자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 이유 중 하나는 동반관계의 부족이었다.	전형적(7)
아이들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사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전형적(5)
언어소통의 어려움도 관계 맺기를 어렵게 했다.	드문(3)
부모 역할을 수행	
그룹 홈의 분위기를 가정과 같이 만들고, 종사자는 부모 역할을 감당하였다.	일반적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며,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형적(9)
같동이 되었던 생활규칙	
탈북 청소년은 그룹 홈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일반적
탈북 청소년이 규칙을 잘 준수하기 않는 이유는 탈북 과정에서 자유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일반적
종사자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아주 일상적인 기본적인 생활규칙만을 지키도록 하였다.	전형적(7)
아이들을 존중하고, 믿어주고, 형식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형적(6)
탈북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	
남한 아이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전형적(5)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보다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
그룹 홈 운영의 어려움과 대처 전략	
관련 법규 준수의 어려움	
탈북 청소년의 그룹 홈은 아동복지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드문(4)
재정적 어려움	
그룹 홈에 필요한 것인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
종사자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한 혹은 지역사회에 후원을 받는다.	전형적(6)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생활 중심보다는 가시적인 행사 중심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운영할 때가 있다.	전형적(8)

영역과 범주	응답빈도
업무과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전형적(6)
보조 인력의 부재	전형적(6)
아이들과 업무 분담으로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	드문(2)
소진관리	
된다.	일반적
동료들과 교류한다.	드문(3)
비전을 기억한다.	드문(3)
종사자의 보람과 비전	
종사자의 보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느낌	일반적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의 적응하는 것을 보는 기쁨	일반적
개인적인 성숙	드문(3)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쁨	드문(2)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	드문(2)
종사자가 가진 비전	
통일준비과정의 소명의식	일반적
건강한 한국사회 조성	전형적(5)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제안/의견	
입소 대상의 확대	
연고 청소년들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룹 홈 수용이 바람직하다.	전형적(5)
그룹 홈을 퇴소한 후에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퇴소 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
종사자의 자질	
탈북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전형적(8)
그룹 홈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드문(1)
탈북 청소년 및 탈북자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전형적(5)
다양한 경험 제공의 필요성	
남한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남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전형적(7)
남한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	전형적(7)
종사자 외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도 중요하다.	드문(4)

1.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 경험

1) 그룹 홈 입소 초기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그룹 홈 종사자들은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 초기에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탈북 청소년의 겉모습은 거칠고 강하게 보였고,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종사자를 믿고 따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연고 아이들은 강한 척은 다 해요.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의 강한 척이 아니라 아이들이 북한에서 건너오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상황인데, 북한 아이들 성향이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약간 공격적인 부분,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호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약간 벽 같은 다가설 수 없는 벽” (종사자 1)

아이들은 북한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었던 방식으로 혹은 탈북과정에서 만났던 어른들과의 관계방식으로 종사자와 관계를 맺으려 하고, 종사자는 한국 문화의 부모 입장에서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초기 기대가 서로 달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종사자들이 탈북 청소년이 종사자와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반경험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부모들은 남한부모들이 아이들을 챙기는 것처럼 아이들을 보살피지는 않았다. 북한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일차적인 책임으로 생각하지만, 남한 식의 생활지도를 하지는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탁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부모 자신의 의무로 여기지는 않았다. 또한 아이들 중에는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을 종사자에게 표현하기 때문에 종사자와 관계 맺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다.

“탈북 아이들 특성이 이런데 (그룹 홈)를 어색해 하는 거예요. 처음엔 살아보면 여기가 더 좋은지 알지만 하나원에서 처음에 배치 받을 때는 간섭받기 싫어하는 탈북 무연고 아이들의 성향이 있어요. 막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가족관계가 주는 피곤함이 있고 당혹감이 있더라고요.” (종사자 9)

아이들이 종사자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탈북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이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정을 주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정을 주려 하지 않았다. 또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지낼 거예요?’라고 물으면서 종사자와 자신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아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지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언어 소통의 장애도 초기에 종사자가 아이들과 관계 맺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거주가 길면 탈북 청소년은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사자는 통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북한에서 바로 오면 연고가 없고 저한테 의지하는데 이제 부모님 한 쪽이 있고, 중국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감추고 거짓말이 많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속을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한 서너 끼플 벗겨봐야 이 아이들이 세 파에 시달린 거예요.” (종사자 2)

“아이들이 많이 북한에서 직통으로 온 아이예를 들어서 6살짜리 북한에서 직통으로 온 아이가 있어요. 언어 할 때도 강냉이 이리면서 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애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으로 경유해서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애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온 애들이예요. 제일 어린 애가 8년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중국말을 더 잘해요. 규칙을 ‘중국어로 말하지 않기!’ 라고 정한 적도 있어요.” (종사자 8)

2) 종사자는 부모 역할을 수행

연구에 참여한 모든 종사자는 자신의 역할을 부모로 그리고 그룹 홈을 가정 체험으로 표현하였다.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극복하였다. 부모 역할은 입소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달라졌다. 어린 청소년에게는 놀이 친구의 역할과 보육의 역할을 그리고 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는 기본 생활 습관과 자립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애들하고 같이 그룹 홈에 있다 보면 엄마, 아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부딪힘이 이게 생활에 접점이 많아요. 무연고 아이들은 보육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활에서 챙기고 부딪히고 잔소리 하고 실랑이 벌이고 이 과정에서 좀 채워가고 애정결핍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종사자 10)

“저는 같이 놀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애들도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언니! 언니 처럼 그래서 얼음땡하면서 같이 놀고 같이 뛰어 놀구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베게싸움 공공칠빵 이런 거 다 제가 애들한테 막 알려주고 공기도 좋아라 하더라고요. 참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종사자 8)

부모 역할 중 종사자는 남한 일반 가정에서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강조되었다. 식사 준비, 귀가 시간에 맞추어 외출시간을 조절하여 아이들이 학교 후에는 집에 있어 주는 것, 등교 시간에 신호등 건너는 것을 돕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소풍 때 담임교사의 도시락을 싸 주는 것을 통해 탈북 청소년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음을 당사자에게 그리고 주변의 남한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실제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줌으로써 남한 아이들과 비교하며 죽었던 아이들의 기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3) 종사자들과 아이들 간의 가장 큰 갈등인 생활규칙

종사자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생활규칙 준수이다. 그룹 홈은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기본 생활습관의 조성 시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였다. 탈북 청소년은 그룹 홈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룹 홈 밖의 사회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학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지각하는 경우들도 계속해서 있어요. 직장에 일을 안 나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에 깨우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종사자 5)

종사자는 기상과 취침 시간이 있다는 것과,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것부터 설명해야 했다. 또 최소한의 청결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입소 초기에는 종사자가 혼자 청소를 하여도, 아이들은 청소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아 전혀 돕지 않았

다. 종사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아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종사자에게 쉽지 않았다. 오랜 제3국 경험이나 탈북 과정 중의 불규칙적인 생활이 익숙하였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데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애들이 처음 1년 왔을 때, 의무가 없잖아요. 물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정리한 다음 주방에 가 가지고 음식을 다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식사하자 그랬는데 애들이 안 먹을래요. 딱 이리고 그냥 자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애한테 일년쯤 지나니까, 제가 장을 봐 가지고 오며,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장 본 거를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일년째 되니까 되더라구요.” (종사자 1)

탈북 청소년은 그룹 홈의 생활규칙이 자신들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느꼈다. 종사자는 담배와 술, 이성교제를 지양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였다. 많은 충돌이 있는 후에 종사자들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탈북 청소년이 외로움을 이성교제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종사자도 이성교제를 허용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이런 성격함에 대해 종사자들은 가치관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였지만, 후에 아이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성의 친구가 생기면 종사자에게 소개해 달라고 초대하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종사자 9의 경우에는 가출도 2번까지는 허용하는 정도로 종사자의 기대 수준을 아이들의 행동 패턴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남학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을 만나고 이런 것도 있고 무단 외박을 하면 여기서 안 되는데 뭐 무단 외박을 해도 야단친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같이 누구와 있었는지 남자 친구를 있었으면 그 남자 친구랑 내가 통화를 해서 그 남자친구는 어떤 엔지 내가 또 만나보기도 하고 오히려 인제 그런 식으로 막는 게 아니고 만나는 이성이 있으면 내가 차라리 만나서 둘을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거 같아요.” (종사자 2)

종사자들은 생활규칙과 관련된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이 성숙해졌음을 느꼈다.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절하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자신의 기대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과, 탈북 청소년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이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일단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 성향에서 비롯된 행동방식이고 뭐 또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바뀌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년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 되서 나타난다고 받아들여요. 그니까 이제 막 조금 좀 더 제가 넓은 마음으로 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친구들한테 기대를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인제 늘 저한테도 향해 있었던 거고 타인들한테 향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 관계들 안에서도 드러나고 줘.” (종사자 5)

4) 탈북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에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종사자들이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면 이를 북한아이들의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남한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북한 아이라서’ 라는 인식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또 아이들 사이의 갈등도 북한아이들의 갈등이 아니라, 공동생활에 필연적인 갈등으로 개념화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뭐 남한에 있는 그룹 홈에서도 조금 있었지만, 여기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 뭐 그런 굉장히,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겁도 먹기도 했고, 다르다는데 어떡하지 뭐 그러했는데 아직 저도 모르지만 이제 2년을 살면서 저희가 느낀 게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그게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청소년 시기를 가고 있다. 남한 북한을 떠나서.” (종사자 3)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그룹 홈에 상주하기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관찰하였다. 대부분의 그룹 홈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보다는 일자리를 원하였다. 무연고 청소년들은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북한의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올 비용을 마련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한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 미술관,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그게 탈북 청소년들의 흥미나 익숙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야외 활동 등을 선호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주말의 축구 활동에 참여할 때는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한 참여보다 적극성을 띄고 있었다.

“시골로 놀러갔는데, 감자 캐기, 밭에서 일하잖아요. 어른들 그런데 애네들이 막 노는 거예요.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 막대기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긴 막대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끝에는 V자로 갈라진 막대기예요. 그거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막대기에다가요. 거미줄을 칭칭 감아요. 그거 가지고 휘휘하면서 막 잠자리 잡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뭐지 네 거미줄을 이용해서 애네들이 마당에다 불 피우고, 아직 아궁이가 있어요. 그 가마도 그 여물도 즐려고 아궁이로 소여물 하잖아요. 불도 정말 잘 지피요. 불 조절 정말 잘 해요. 이 아이들은 가스레인지보다 아궁이 불 때는 거 더 익숙한 거예요. 더 편한 거죠.” (종사자 4)

2. 종사자가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전략

1) 관련 법령 준수의 어려움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의 그룹 홈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적인 그룹 홈은 아동복지법의 그룹 홈 운영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탈북 청소년 그룹 홈의 경우, 탈북 청소년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추어 실제 운영을 아동복지법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운영기관이 이 문제를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기 못했다.

“이제 법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아동복지가 있고 보면 좀 특이해요.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그룹 홈이 있구요. 그냥 일반 법인으로 해가지고 그룹 홈이 설립되는 게 있어요. 정착지원법 상 그 설립 근거 자체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정착 지원법에서는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종사자 1)

“지금 그룹 홈으로 인가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 저희는 무연고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취지로 집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보통 그룹 홈은 아동복지법이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모두 18세 이상이거든요.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올 애들이 다 18세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여기는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에 건의도 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별 움직임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니 그냥 신고를 하라고 하죠. 인가가 아니라.” (종사자 3)

2) 재정적 어려움

종사자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그룹 홈 운영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연고 청소년을 받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입소 청소년들도 연고 청소년을 받는데 동의하여 실제적으로는 연고 청소년들도 입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연고 청소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정부 및 지원 단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종사자들이 지적한 재정적 어려움 중 하나는 공간의 협소함이었다.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과 학습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만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적되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TV 시청이 도움이 되는 데도, TV는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 등도 지적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종사자들은 외부의 재정 후원 및 기타 도움을 청하였다. 개인적인 후원으로는 지역사회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일대일 학습지원을 받거나, 교회나 주부들의 모임으로부터 밑반찬 등의 도움을 받았다. 후원 단체는 종사자들과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연결된 곳이 많았고, 지역사회 관공서의 후원은 선

호하지 않았다. 관공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 1회성 행사를 위한 후원인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았다.

종사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 인한 자율성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포절을 제출하여 비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 와서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거나 그 시기에 실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미 재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수 없었다.

“사회가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이들 식사 한번 하고 사진 찍고, 뭐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진 찍을 때 **는 프라이팬으로 자기 얼굴 가려요. 특히 아이들이 북한에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사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찍는 거는 누구든 싫어하잖아요. 특히 사진에 많이 민감해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참 잘 지내다가 사진 찍으면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은 되게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근데 여기저기 자원을 동원하다보면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조금 해 주고 막 사진 찍어야 되고.” (종사자 1)

동료 없이 혼자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힘들지만, 또 동료가 있을 때 동료와의 갈등도 종사자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재정적 후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가치관이 다른 경우에 어떤 종사자는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운영하고자 하고, 어떤 종사자는 가정생활 경험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참여를 지양하여 갈등이 일어났다.

3) 업무 과다

종사자들은 업무과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룹 홈에서 종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다양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룹 홈은 아이들이 지내는 가정이며,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도 집안 살림과 교육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거기에 재정 후원과 관련된 서류작업과 회계보고 등의 행정업무도 병행해야 하였다.

“지금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도 그냥 애들 케어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의 공동생활이라 함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일상생활까지 전체적으로 토달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많은 수가 있지요 멀티 플레이어예요. 손이 많이 가는 게 학교 관련 업무들이 많잖아요. 전학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경우 그런 과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새터민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조금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많아서.” (종사자 8)

또한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있다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나 보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생길 경우에 일상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혹은 돌발 상황에 투입될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애들 학교 간 사이에 장도 보고 행정 업무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 산책, 독서할 시간이 없었다. 종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아이들과 일상의 일을 나누어 분담하면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사 준비는 종사자가 한다면, 그 후의 정리는 아이들이 담당하거나, 청소를 나누어 하는 정도이다.

면접자의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하는 종사자가 더 많거나, 순간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업무과다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의 소진을 경험할 때 종사자들은 우선은 쉰다. 업무를 단순화하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기도를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 쉬려고 한다. 또 같은 일을 하는 그룹 홈 종사자들과 만나거나, 그룹 홈 종사자 간의 워크숍 등을 가면 가장 공감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이일에 종사하는 소명의식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소진을 극복하였다.

3. 종사자의 보람 및 비전

1)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

종사자들은 그룹 홈에서 일하는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갈등도 있고 해결해야 하는 업무도 많지만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으로 이 일에 종사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냥 제네들이 커 나가면서 보람을 느낀다거나 제네들이 변화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 같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애네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제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 보람을 얻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애들이 한 번씩 애교 피우는 거 보면 사르르.” (종사자 8)

2) 아이들의 변화

탈북 청소년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 변화를 돕는 것이 종사자들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공동생활을 어려워했다. 누군가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그룹 홈에서 생활하면서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은 동반생활에 점점 적응하여 갔다.

종사자들은 입소 청소년이 그룹 홈에 함께 있는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 입소 초기에는 그룹 홈 청소년들 사이에 서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힘의 위계질서와 같았던 서열은 후에 형제자매 성격의 서열로 성격이 바뀐다. 나이든 청소년들이 형이나 언니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된다.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형이나 언니를 의지하고 따른다. 특히 형이나 언니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역할 모델이 되어 그룹 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전에는 11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11시 넘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보면 서, 발에 지푸라기 같은 거 붙어있어요. 한 판 붙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

어 졌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 사이에 기가 센 아이들이 있는데요. 일단 형이 제일 만형이요. 제일 만형이 되게 따뜻하고, 중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 줄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요, 밑에 동생들은 싹 잡혀요. 일반 가정에서도 형이 열심히 하면 동생이 따라가듯이.” (종사자 1)

어렵기는 했지만 입소자들이 점점 남한 아이들과 관계를 시작하고, 남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종사자들은 보람을 느꼈다. 또한 아이들이 초기에는 자신의 생존 혹은 남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후에는 통일 이후의 자신의 역할을 보거나, 탈북자를 돕는 일을 진로로 선택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종사자들의 보람이었다.

3) 통일에 대한 비전

종사자들은 조만간 통일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룹 홈 운영은 통일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은 통일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종교적 소명으로 받은 종사자도 있었다.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적응은 통일 준비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한국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인식개선사업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물론 잘 돼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아이들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신고까지 한 애가 있어요. 안기부에 그거 때문에 학교가 또 발각 뒤집어졌거든요. 그때 싸울 때 과연 그 애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애 부모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본 방관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넘어와서 힘들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라가 아닌, 왜 우리랑 친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랑 다른데 왜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게 안 되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사자 4)

4.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제안/의견

1) 입소 조건 확대

종사자들은 입소자의 조건이 무연고에서 연고 탈북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고가 있다고 하여도, 북한 출신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 부모들처럼 학업이라거나 다른 정서적 보살핌을 자신의 양육 의무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들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다른 보살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오히려 연고 청소년이 남한 적응이 더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룹 홈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해서만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연고 청소년은 입소를 하여도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무연고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근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연고 아이들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머니가 계신 아이들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생계비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다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의지할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재혼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아이의 위치가 어머니는 계신데 어머니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위치,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같이 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종사자 1)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청소년들의 퇴소 후를 염려하였다. 대학에 진학한다 하여도 실제 보조되는 생활비로는 대학생으로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진술하기도 하고, 실제 취업 후에도 자립하기까지의 생활 습관 형성 등이 안 된 경우의 예도 진술하였다.

“제가 3-4명을 내보내면서 아 이게 퇴소생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동반이 정말 필요하겠다.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 그래도 꾸준히 동반이 있는데 퇴소생 아이들은 솔직히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깐 전화통화만 가지고는 뭐가 파악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룹 홈에 2년 3년 있으면 나가서도 잘 살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단계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 동반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나가선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는 또 다른 사원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해요 동반이 그 동반이라는 게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 이 퇴소라는 자체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집을 받는 이 제도가 나쁜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고 모든 그룹 홈이 가져야 할 숙제인거 같아요.” (종사자 3)

2) 종사자의 자질 및 태도

종사자들은 향후 그룹 홈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성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안정적인 성품이란 지나친 헌신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알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지나치게 헌신한 후 아이들에게 실망을 느끼거나 소진하는 반작용이 적은 성품을 말한다. 또한 안정적인 성품이란 아이들과 자신의 가치관이 상충할 때 사고가 자연스러운 성품을 말한다.

그리고 기본 성품에 덧붙여 종사자는 사회복지 개념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처음 그룹 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추고, 탈북 청소년의 그룹 홈 종사 이전에 일반 그룹 홈에서의 근무 경력을 쌓은 후에 현장에서 일하기를 추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종사자들이 그룹 홈에서 일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탈북자들과의 교류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여도 성인 탈북자와의 관계를 가지면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조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종사자가 어떤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북한학을 배우면서 저도 많이 깨졌어요. 어 내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는 반공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아우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단. 북한 바로 알기도 아주 중요하겠단. 그래서 북한을 인정해 주는 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단. 그럴려면 어린 애들

부터 좀 깨게 해 줘야겠다. 북한은 빨 달린 애들이 아니라 못 사는 애들이 아닌 정말 어찌면 더 자존심도 강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 통일은 이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평화잖아요.” (종사자 3)

3) 다양한 경험 제공의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남한 적응을 빠르게 돕는 방법으로 보았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또래들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데, 남한 청소년 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농촌에 가면 북한에서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낀다. 도시 속에서 그리고 남한 청소년 문화가 낯설기 때문에 선뜻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남한 문화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진을 다 빼고 온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이유도 일반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과 남한 청소년과의 교류 때문이다.

“침엔 일반학교 가면 안 다닌다고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거는 통과외래입니다. 애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반학교라는 통과외래 기억도 공유돼야 살 거 아닙니까. 애들하고 경쟁도 하고 싸움질도 해 보고, 소풍도 가봐야지 이 사회 기억을 공유해야지만 이 사회에 성원으로 살 거 아니에요. 초등 때 오히려 다 부딪혀 버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종사자 9)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경험이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되었다. 종사자들은 탈북 청소년이 그룹 홈 관련자나 탈북 지원 관련자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남한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였다. 한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와의 관계가 탈북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관찰하였다.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보다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던 탈북 청소년이,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기로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거까지 하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오셨을 때 저하고 나누지 않았던 다른

대화들을 막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분을 통해서 애가 그 부분을 털어 놓게 하고 학습봉사자 선생님하고도 라포 형성하면서 아이가 풀어내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 줘요. 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하고도 애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사자 3)

종사자들이 시도한 다양한 활동 중 탈북 청소년의 외상 치료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상담 작업이었다. 처음에 입소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룹 홈에 적응한 후에 아이들은 과거의 경험이 불현듯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또래관계나 남한 사람과의 경험 속에서도 과거 탈북 중에 받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처음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외상을 재경험하게 되면 경험했던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밝히고 도움을 받았다.

“솔직하게 애들이 이제 외상이 있잖아요. 그면 한 여기서 안정이 되면 그게 나오는 거 같아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것들하며 이제 그런 게 그리고 조금씩 작용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게 항상 장애가 되는 일으킨다. 그럴 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담을 음악치료가 됐건, 모래 놀이가 됐건 그러더니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비폭력 대화를 좀 해 볼까요. 그래서 한 번 해 볼래 그러고, 연결을 시켰어요.” (종사자 3)

V. 논 의

본 연구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과의 그룹 홈 거주 경험을 남한 그룹 홈 종사자의 목소리로 기술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룹 홈 종사자들의 탈북 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대인접촉 양상과 가장 근접한 형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경험, 종사자가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전략, 종사자의 보람 및 비전,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제안/의견으로 나누어졌다. 각 영역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반경험이 부족하고 탈북 과정 여러 번의 상실경험으로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이 속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그룹 홈 종사자들은 초기에는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동반 경험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 제3국에서 태어난 중도입국 탈북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 소통의 장애가 초기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가 더 어려운 이유였다. 이는 탈북 청소년이 타인을 쉽게 믿지 않고 경계한다는 선행 연구(조영아, 전우택, 2004) 결과와 일치 한다.

그룹 홈 종사자들은 그룹 홈에서 가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생활규칙, 가치관 차이 등과 관련해서 아이들과 잦은 갈등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선호 음식이나 선호활동, 이성관, 재복 가족 및 남한입국 비용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특성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관계 맺기가 쉽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 홈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안학교 일반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고 비전문적이지만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지도하고 있는 것(진상우, 2010)과 비교해보았을 때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종사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부모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하고 있었다.

그룹 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과의 관계경험을 보면 그룹 홈 경험은 탈북 청소년에게 안전한 지원체계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의 그룹 홈이 탈북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한명자(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또한 그룹 홈의 효과는 대학생 뿐 아니라(노영환, 2010), 무연고 및 연고 탈북 학생에게도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끼리의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가족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룹 홈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박정순, 2008).

본 연구결과를 보면 종사자들은 그룹 홈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탈북청소년과 북한의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제언했듯이 이제는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조력자들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신현옥 외, 2011).

북한 문화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실무에 임하게 되면,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초기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그룹 홈 종사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법령 준수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후원으로 인한 자율성의 한계, 업무과다, 동료와의 갈등이었다.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운영은 남한 청소년들의 그룹 홈 운영의 지침이 되는 아동복지법으로는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무연고는 아니지만 그룹 홈 생활이 필요한 탈북 청소년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간협소 및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뒤 따른다. 그룹 홈 종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전략으로 외부의 재정후원 및 개인적 인적망을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공공기관의 후원을 위한 프로그램 식 운영은 그룹 홈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제한하고 보여주기 식 활동을 해야 하고 이때 동료와의 갈등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그룹 홈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앞으로의 그룹 홈 운영을 위한 정책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이미 김경준 외(2008) 등이 주장하였듯이, 탈북 청소년의 경우 복지정책관련 법제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탈북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룹 홈 시설인증 및 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침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그룹 홈은 생활밀착형 정서지원에 해당되므로 사업(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보다는 탈북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 경제적 지원, 인건비 지원에 주안점을 두거나 표준화된 탈북 청소년용 그룹 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 된다.

무연고 탈북 청소년 그룹 홈 종사자들은 남한의 그룹 홈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 수행과 행정 수행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정익중, 조순실, 2008; 홍선희, 양계민, 2009).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소진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쉰다’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룹 홈 운영 계획 안에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소진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노력으로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 종사자와의 모임이 언급되었다. 이런 모임은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조력자들의 네트워크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다.

셋째, 그룹 홈 종사자의 보람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과 그룹 홈 생활을 통한 탈북 청소년들의 변화였다. 그룹 홈 생활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그룹 홈 내 탈북 또래들과의 관계 변화, 남한 아이들과의 관계 변화, 성적 향상, 통일 이후 역할조명, 동료 탈북자 조력업무에 대한 진로탐색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곧 그룹 홈 종사자의 보람이었고 운영자들 또한 통일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을 탈북청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남한의 조력자들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시기가 장기화되어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는 상반된다(양계민, 정진경, 2005). 다른 기관 종사자와 그룹 홈 종사자 경험의 차이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조력행위처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대인관계 접촉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서지원으로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대인관계 경험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경험은 향후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좀 더 장기간의 밀착 경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보다 인간적인 차원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넷째, 그룹 홈 종사자들은 효율적인 그룹 홈 운영을 위해 가정과 같은 소규모 운영, 다양한 경험 제공, 연고 청소년의 입소 조건 확대, 그룹 홈 퇴소 후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그룹 홈 종사자들은 종사자의 자질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나친 헌신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성품과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그것이다 미국아동복지연맹에 따르면 그룹 홈 운영의 적정인원을 5-12명까지 확대하였으나, 6-8명이 적절하다고 하였는데(정익중, 조순실, 2008),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수 대상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6-7명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대안학교 탈북 청소년들이 야외체험 활동을 통해서 놀이를 통한 재미뿐 아니라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의미부여를 한다는 선행연구(진상우, 2010)와 유사하게 종사자들은 그룹 홈 밖의 다양한 인적자원과의 개방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이 제안한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인 그룹 홈 운영에 대한 지침과 유사하다 아마도 다음 단계는 그룹 홈 운영 지침이 잘 준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무연고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모니터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그룹 홈 고유의 특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담당인력의 배치와 함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겠으며, 그룹 홈 중도탈락 인원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요구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제안 중 향후 그룹 홈 자격에 그룹 홈 운영 경험 및 자격에 대한 언급은 향후 그룹 홈 운영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룹 홈의 실무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필요를 느껴 사회복지사를 획득한 경우가 많다. 이는 그룹 홈 종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전문성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실제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룹 홈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양성하려는 노력과, 향후 실무에 있는 종사자의 재교육 훈련 등이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거의 전수가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추후 개설될 그룹 홈 신규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연구에 참여한 종사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의 전수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룹 홈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홈 퇴소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이나 자립수준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그룹 홈 생활이 대학생생활이나 경제적 자립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그룹 홈 중도탈락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경준, 오성배, 강태중, 정유성, 이부미, 조정아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 08-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이수정, 김현아, 원재연, 윤상석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Ⅲ: 정규학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연구보고 08-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연구**(연구보고 RR: 2004-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우 (2007).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이선, 마경희, 선보람, 최호림, 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현 (2012).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영환 (2010). **대학 내의 새터민 대학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숙사를 활용한 그룹 홈(Group Home)과 또래 협력학습(Peer Tutoring)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일권 (2005). **탈북 청소년 적응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순 (2008). **사회적 지지가 탈북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하나 (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이해: 초입 중학생의 평가 경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정숙 (2005). **그룹 홈 아동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신현옥, 김도혜, 윤상석, 허수경, 강희석, 이소라 외 (2011). **무연고 탈북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CR-2011-26-2). 서울: 한국청소년교육개발원.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7-115.
- 양영은 (2009). **학업중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 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적응: 초기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이향규, 이강주, 김윤영, 한만길, 김성식 (2011). **탈북 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주, 박현선(2009).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 멘토링 참여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4), 331-358.
- 전명남, 김현아 (2004). **또래 협력학습(peer tutoring)을 통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업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2004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논문집). 서울: 통일부.
- 정병호 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서울: 남북문화통합교육원.
- 정익중, 조순실 (2008). **아동청소년 그룹 홈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아동청소년그룹 홈 협의회.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진상우 (2010). **북한이탈학생 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H 대안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자 (2008). **새터민 학생의 학업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자, 곽종문, 채경희, 박찬수 (2011).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연구보고 NKR-2011-04).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총서.

- 한만길, 현주, 김창환, 오기성 (2003).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명자 (2012).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의미: 근거이론에 의한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선희, 양계민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자의 이직욕구, 직무 만족 및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364.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derman, D. S. (1995). *Child welfare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NASW Press.
- Whittaker, J. K. (1985). *Children: Group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NASW Press.

ABSTRACT

The experiences of workers at group homes for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Kim, Hyun-A* · Bang, Kee-Ye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of workers at group homes for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making use of their own testimony and perspectives. Ten group home workers were interviewed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Consensual Qualitative method. The group home workers had initial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 rapport with the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due to their lack of a preexisting companion relationship experiences. However, as they began to better understand the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they began to create an alternative family relationship with them. It took approximately about one year for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to become adjusted to Korean society and South Korean people. The group home workers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and heavy workload, but found meaning in their work through helping and living with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They recommended prospective group home workers should have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both group home management and North Korean people and culture. This study also included a number of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Key Words :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Group Home Workers, Qualitative Study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7월 23일, 심사완료일 : 8월 10일

* Seoul Cyber University

**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